Morning Meeting Notes

2025-03-10

내일의 차이 현대차증권

What's Inside

엔터/레저(OVERWEIGHT) - 2월 K-POP Review
[투자전략] Strategy Weekly - 트럼프 2.0, 시장은 현재가 아닌 미래를 본다

주식시장

국내 증시는 관세정책 불확실성에 하락 마감. 반복되는 트럼프 정부의 관세 부과 및 유예가 시장의 혼란을 키우면서 코스피는 장 초반 -1% 넘게 하락 출발. 다만 이후 POSCO홀딩스가 급등하는 등 일부 종목 강세에 낙폭을 축소하였음. 업종별로는 폴란드 대통령의 한국산 무기 극찬 발언에 방산주 강세 시현. 미국 증시는 파월 의장의 낙관적인 경제 발언에 힘입어 상승 마감. 파월은 미국 경제가 여전히 견고하다고 평가하며, 노동시장과 인플레이션이 긍정적인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고 언급. 이날 발표된 2월 미국 비농업 부문 고용은 예상치를 하회했으나 시장에 큰 충격을 주지는 않음. 업종별로는 기술주와 에너지 업종이 강세를 보였으나, 일부 소비재와 금융 업종은 하락

금리&환율

국고채 금리는 하락 마감. 외국인 매도세 확대에도 대외금리 하락에 연동되며 강세 마감. 미국채 금리는 파월 의장의 긍정적인 경제 전망 발언에 영향을 받아 상승 마감. 비농업부문 고용이 시장 예상보다 부진했지만, 파월 의장은 노동시장이 견조하다고 평가. 이는 금리 인하 기대를 약화시키며 국채 금리 반등을 자극

원/달러 환율은 4.40원 상승한 1,446.80원에 마감. 6일 ECB의 매파적 인하에 유로화 강세 진행되며 달러 약세 보였으나, 환율은 직전 3 거래일 연속 하락한 데 따른 되돌림 양상. 달러인덱스는 103.81로 하락하며 11월 이후 처음으로 103대 진입. 고용보고서가 시장 예상보다 부진하게 나와 달러가 크게 하락했으나, 파월 의장의 긍정적인 경제 전망 발언이 하락 폭을 일부 완화

News (Trump watch)

트럼프 "4월 2일부터 예정대로 상호 관세 시행할 것"
트럼프 대통령은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4월 2일부터 상호 관세를 본격 시행하며, 관세가 상황에 따라 추가로 인상될 가능성을 언급
캐나다와 멕시코산 제품에 대해 USMCA 적용 품목은 한 달간 관세를 유예했으나, 이후 면제는 없을 것이라고 강조

New Publications

[건설/부동산] 아파트 멀리보기(2025-03-07)
[정유화학] 미국 LNG가 온다(2025-03-06)
[IT/모빌리티] CES 2025 방문 후기 및 투자 활용법(2025-01-15)
[태양광] 태양광, 반등의 서막(2025-01-15)
[인터넷/게임/엔터] 25 Events to Watch(2025-01-06)
[반도체] 2025년 반도체 산업 전망: B300이 출시되는 2분기가 변곡점이 될 전망(2024-11-27)
[ESG] ESG Report - AI와 에너지 전환 그리고 주요 기업 분석(2024-11-26)
[음식료/화장품] 2025년 음식료/화장품 전망: 헤어지자고? 나 지금 저점인데?(2024-11-21)

Rating, Target Price Changes

성광벤드	BUY	27,000 원 ▷	BUY	37,000 원	(2025-03-06)
SNT에너지	BUY	35,000 원 ▷	BUY	43,000 원	(2025-03-06)
SK이노베이션	BUY	150,000 원 ▷	BUY	160,000 원	(2025-03-06)
SK스퀘어	BUY	110,000 원 ▷	BUY	130,000 원	(2025-02-27)
대한제강	BUY	18,100 원 ▷	BUY	21,000 원	(2025-02-26)
코스맥스	BUY	180,000 원 ▷	BUY	210,000 원	(2025-02-25)
현대로템	BUY	87,000 원 ▷	BUY	114,000 원	(2025-02-25)
클리오	BUY	47,000 원 ▷	BUY	25,000 원	(2025-02-24)
와이지엔터테인먼트	BUY	55,000 원 ▷	BUY	70,000 원	(2025-02-21)
롯데지주	BUY	30,000 원 ▷	BUY	27,000 원	(2025-02-20)
한국철강	BUY	11,500 원 ▷	BUY	10,500 원	(2025-02-20)
파라다이스	BUY	14,000 원 ▷	BUY	13,000 원	(2025-02-19)
KT	BUY	47,000 원 ▷	BUY	55,000 원	(2025-02-17)

외국인 순매수		국내기관 순매수	
순매수	금액(백만)	순매수	금액(백만)
한화에어로스페이스	149,435	LG화학	22,189
POSCO홀딩스	105,856	한화시스템	16,767
한화시스템	65,880	이마트	16,399
SK하이닉스	41,649	포스코인터내셔널	15,331
현대제철	26,917	현대로템	14,690

외국인 순매도		국내기관 순매도	
순매도	금액(백만)	순매도	금액(백만)
삼성전자	-146,306	알테오젠	-23,016
LG전자	-26,150	LS ELECTRIC	-21,255
메리츠금융지주	-25,012	KODEX 200선물인버스2X	-20,095
알테오젠	-24,168	KODEX 코스닥150레버리지	-19,437
NAVER	-22,135	올릭스	-15,680

국내시장 동향	종가	D-1(%)	D-20(%)
KOSPI	2,563.48	-0.49	+1.65
대형주	2,545.50	-0.60	+1.15
중형주	2,914.36	+0.15	+4.75
소형주	2,188.54	-0.51	+3.00
KOSDAQ	727.70	-0.98	-2.05

투자자별 매매동향 KOSPI	개인 (억원)	외국인 (억원)	기관 (억원)
순매수	-3,693	1,375	1,561
누적순매수(D-20)	6,951	-36,139	14,632

거래대금(코스피+코스닥)	금액	D-1	D-20
(평균,단위 :억 원)	192,164	187,207	200,759

업종별 지수	종가	D-1(%)	D-20(%)
건설	74.38	+0.13	+8.35
금융	469.09	-2.00	-1.98
운수장비	3,282.07	+0.72	+12.66
유통	353.91	-0.06	+9.90
음식료	3,851.26	-0.44	+1.84
의약품	16,209.84	-2.55	-4.01
전기전자	22,452.54	-0.29	-0.90
철강금속	5,322.54	+3.67	+16.38
화학	3,535.85	+1.72	+6.51
유틸리티	754.45	-1.11	+9.82
통신	451.54	-0.97	+2.5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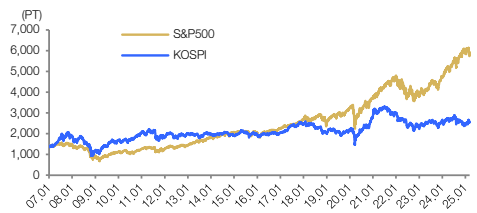
해외시장 동향	종가	D-1(%)	D-20(%)
S&P500	5,770.20	+0.55	-4.24
NASDAQ	18,196.22	+0.70	-6.80
일본	36,887.17	-2.17	-4.90
중국	3,372.55	-0.25	+2.08
독일	23,008.94	-1.75	+5.61

주요 금리 동향	종가	D-1(bp)	D-20(bp)
국고채 (3년)	2.57	-2.90	-7.00
국고채 (10년)	2.77	-3.30	-6.30
은행채AAA (3년)	2.85	-3.00	-8.60
미국국채 (2년)	4.00	+3.85	-29.55
미국국채 (10년)	4.30	+2.45	-19.20

환율 동향	종가	D-1(%)	D-20(%)
원/달러	1,446.80	+0.31	-0.07
원/백 엔	977.96	+0.22	+2.20
원/위안	200.00	+0.48	+0.68
달러/유로	1.08	+0.57	+5.03
위안/달러	7.23	-0.18	-0.74
엔/달러	147.94	+0.09	-2.22
Dollar Index	103.81	-0.37	-3.95

상품시장 동향	종가	D-1(%)	D-20(%)
WTI (usd/barrel)	67.04	+1.02	-5.58
금 (usd/oz)	2,914.10	-0.43	+0.92
BDI	1,286.00	+4.72	+62.17
천연가스(NYMEX)	4.40	+2.25	+32.94

KOSPI, S&P 추이



본 조사자료는 고객의 투자에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무단복제 및 배포할 수 없습니다. 또한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 얻어진 것이나,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최종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고객의 주식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엔터/레져

2월 K-POP Review

OVERWEIGHT

Analyst 김현용 hykim@hmsec.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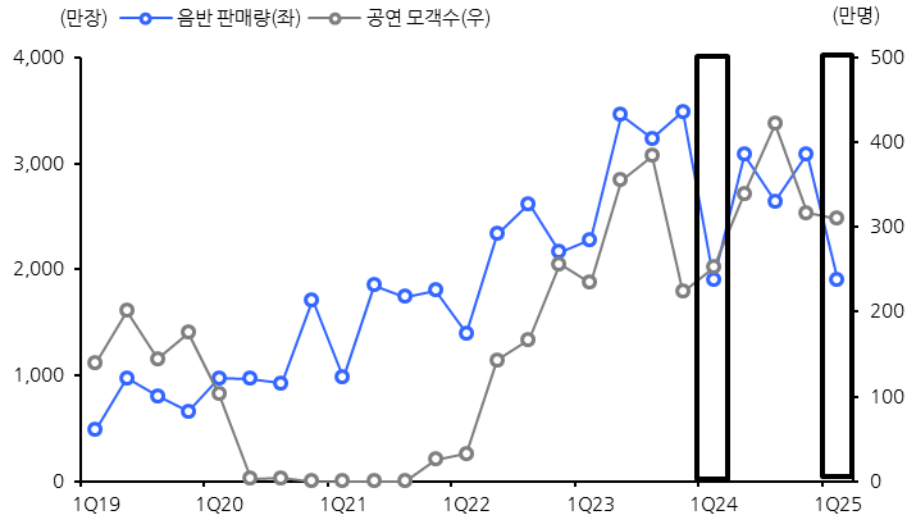
2월 음반 판매량 전년동월비 8% 증가 & 공연 모객수 9% 감소

- 2월 K-POP 음반 판매량은 738만장으로 전년동월비 8% 증가하며 1월의 부진을 일정 부분 만회. 빅4 기획사들의 경우 주력 아티스트 컴백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이브, ZB1, PLAVE, GD 등이 신보를 발매하며 시장 활력. 한편, 2월 K-POP 공연 모객수는 99만명으로 전년동월비 9% 감소
- 아티스트별 음반 판매량은 아이브가 148만장, ZB1이 127만장, PLAVE가 116만장으로 Top 3를 차지했으며, 데뷔 앨범을 발매한 SM H2H가 41만장을 판매하며 뒤를 이음. 기획사별로는 카카오 150만장, SM 61만장, 하이브 27만장, JYP 24만장
- 아티스트별 공연 모객수는 에스파가 11만명, NCT가 10만명, 세븐틴/TVXQ/NiziU가 각각 5만명을 기록하였으며, 기획사별로는 SM 31만명, JYP 14만명, 하이브 12만명 기록

1분기 음반 판매량 플랫, 그러나 공연 모객수는 YoY +27% 예상

- 1분기 K-POP 음반 판매량은 1,900만장(3월 832만장, YoY +20% 예상)으로 전년동기대비 0.2% 감소로 예상되는 반면, 공연 모객수는 320만명(1분기 확정분 309만명 포함)으로 전년동기대비 27% 고성장을 전망함
- 기획사별 음반 판매량은 하이브가 330만장, SM이 200만장, 카카오가 160만장, JYP가 150만장, YG가 110만장으로 대부분 전년동기대비 두 자리수 역신장이 불가피할 전망. 그럼에도 전년동기대비 플랫한 시장으로 선방하는 것은 PLAVE, GD, 블랙핑크 개인 활동, EXO/SHINee 개인/유닛 활동 등이 활발해진 점에 기인
- 기획사별 공연 모객수는 SM이 92만명, 하이브가 63만명, JYP가 47만명, YG가 11만명으로 YG를 제외한 3사는 전년동기대비 각각 16%, 106%, 40%의 높은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

K-POP 음반 판매량 및 공연 모객수 분기별 추이



자료: 써클차트, 오리콘차트, 각 사, 현대차증권

<표1> K-POP 2025년 서구권 모객 동향

아티스트	기획사	2025년 기확정 서구권 공연 현황			비고
		예상 모객수	예정 회차수	회당 평균 모객수	
Stray Kids	JYP	145 만명	30 회	4.8 만명	스타디움 투어 27회차
블랙핑크	YG	78 만명	13 회	5.9 만명	스타디움 투어 18회차 우선 발표
ATEEZ	KQ엔터	23 만명	14 회	1.6 만명	유럽 스타디움 1회 최초 입성
J-Hope	하이브	22 만명	12 회	1.8 만명	-
에스파	에스엠	18 만명	14 회	1.3 만명	-
SMTOWN	에스엠	13 만명	3 회	4.3 만명	-
NCT 127	에스엠	10 만명	6 회	1.7 만명	-
TXT	하이브	7 만명	6 회	1.2 만명	-
기타		24 만명			-
K-POP 아티스트 합계		340 만명(북미 145만명, 유럽 115만명, 남미 52만명, 호주 등 28만명)			

자료 : 각 사, 현대차증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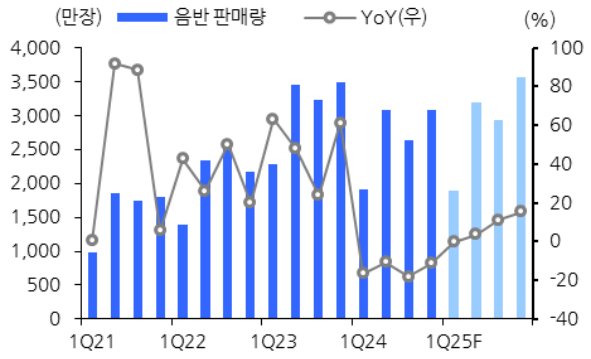
<표2> K-POP 공연 모객수 전망

(단위: 만명, %)

구분	1Q23	2Q23	3Q23	4Q23	1Q24	2Q24	3Q24	4Q24	1Q25F	2022	2023	2024	2025F	25YTD
공연 모객수	234	355	384	224	252	339	422	317	320	599	1,196	1,330	1,700	755
YoY(%)	616.3	148.5	129.6	-12.8	7.8	-4.5	10.0	41.8	27.0	2221	99.7	11.2	27.8	
아시아	188	255	277	206	214	265	333	276	210	401	926	1,088	1,160	416
일본	101	149	179	141	139	138	199	179	110	272	570	655	680	242
북미	15	71	65	13	16	52	71	21	45	166	164	160	320	145
유럽	10	4	14	-	-	11	3	4	22	22	28	18	70	115
남미/호주 등	21	24	27	5	22	11	15	16	43	11	78	64	150	80
하이브	22	89	66	75	31	96	67	115	63	130	252	310	500	129
YoY(%)	330.8	178.6	139.7	13.8	36.7	7.9	2.7	54.1	105.7	447.9	93.3	22.8	61.5	
BTS	-	38	4	-	-	-	-	-	20	26	42	-	130	58
세븐틴	4	20	14	57	13	32	5	75	13	74	95	126	110	21
TXT	3	31	16	5	2	29	44	18	12	16	55	92	100	28
엔하이픈	15	-	21	12	12	18	5	21	11	15	48	57	81	15
JYP	45	56	94	53	34	47	59	85	47	106	247	224	390	210
YoY(%)	359.8	92.2	127.2	103.7	-24.8	-15.9	-37.1	59.3	40.1	5206	133.2	-9.4	74.0	
Stray Kids	36	2	32	13	-	16	11	57	11	36	83	84	190	169
TWICE	-	47	34	32	26	-	32	15	10	28	113	73	95	10
ITZY	8	0	-	-	4	22	4	-	1	5	9	30	30	1
SM	66	96	75	25	79	82	117	39	92	126	262	317	390	159
YoY(%)	n/a	83.0	80.5	-20.2	20.3	-14.4	55.6	55.2	16.3	n/a	108.5	21.0	23.1	
NCT	36	24	30	13	45	54	33	22	39	54	103	154	160	57
에스파	6	8	22	-	-	2	35	-	21	5	36	37	50	21
SMTOWN	-	-	6	-	11	-	-	-	4	18	6	11	30	27
YG	62	67	62	10	33	17	18	5	11	69	202	72	240	124
YoY(%)	n/a	7367	n/a	-84.8	-46.8	-75.3	-71.2	-52.9	-65.5	n/a	191.2	-64.1	231.5	
블랙핑크	42	58	46	-	-	-	-	-	-	47	145	-	140	85
트레져	21	10	16	10	33	10	16	-	1	21	56	59	70	9
베이비몬스터	-	-	-	-	-	7	2	-	11	-	-	9	30	2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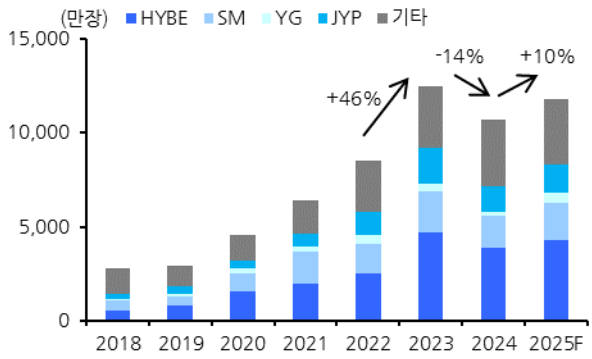
자료 : 각 사, 현대차증권
주 : 25YTD 란에는 현시점에서 날짜와 장소가 확정된 기확정 공연 모객수를 기재함

<그림1> K-POP 분기별 음반 판매량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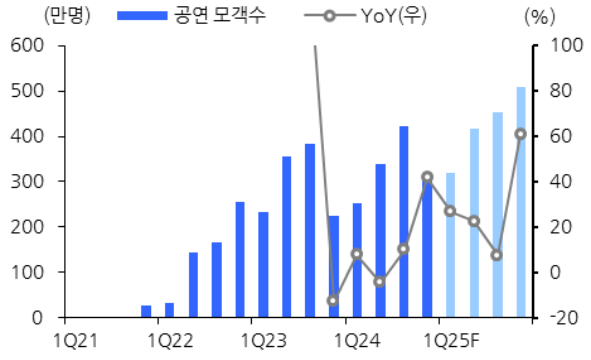
자료 : 써클차트, 오리콘차트, 각 사, 현대차증권

<그림2> K-POP 연간 음반 판매량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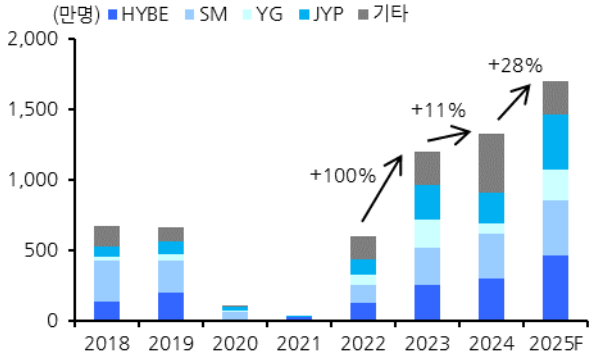
자료 : 써클차트, 오리콘차트, 각 사, 현대차증권

<그림3> K-POP 분기별 공연 모객수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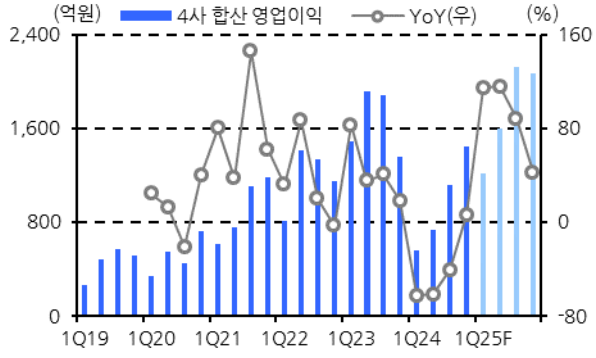
자료 : 각 사, 현대차증권

<그림4> K-POP 연간 공연 모객수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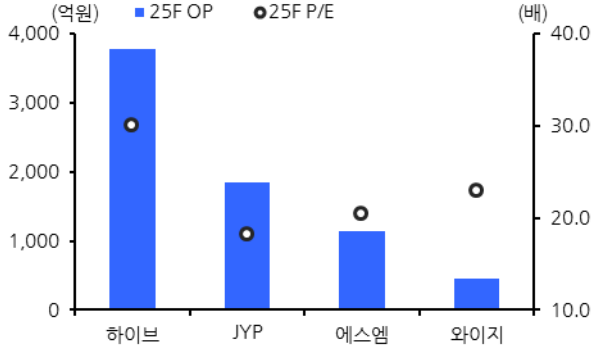
자료 : 각 사, 현대차증권

<그림5> 엔터 4사 합산 영업이익 전망



자료 : 각 사, 현대차증권

<그림6> 엔터 4사 2025년 예상 영업이익 및 P/E



자료 : 각 사, 현대차증권

Strategy Weekly

트럼프 2.0, 시장은 현재가 아닌 미래를 본다

Strategist 김재승
jaeseung.kim@hmsec.com

트럼프 당선 이후 미국과 유럽 증시는 분명한 차별화 보임

트럼프 당선 이후 미국 증시와 유럽 증시는 분명한 차별화를 보이고 있다. 트럼프의 당선이 확실시된 11월 6일 이후 미국 S&P 500은 -2.7% 가량 하락했지만, 유럽 STOXX 600은 +9.2% 상승했다. 이 과정에서 미국 증시는 방어주가 강세를 보인 반면, 유럽 증시는 경기민감주가 강세를 보였다. 미국은 "현재" 경기는 좋지만 점차 경기가 나빠질 것이란 우려가 반영되고 있고, 유럽은 현재 경기가 나쁘지만 더 많은 재정 부양책과 금리 인하로 향후에는 나아질 것이라는 "기대"가 높아진 영향이다.

매크로 지표도 마찬가지다. 올해와 내년 미국은 유럽 대비 높은 성장률이 전망된다. 하지만 시장은 이러한 현재 시점의 좋은 경기가 아닌 미래에 나아질 것이란 기대감에 더 많은 가중치를 주고 있다. 트럼프 2.0 시대를 맞아 지금까지의 성장률이나 지표는 정책으로 인해 크게 바뀔 수 있고, 미래 상황은 지금과는 달라질 것이란 인식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당장의 EPS 성장이 아닌 내년 이후의 기대감에 편승

이러한 특징은 EPS 성장률과 Breadth를 비교해도 분명하다. 일반적으로 시장은 향후 12개월동안 EPS의 성장률에 주목한다. 미국의 12개월 Fwd EPS 성장률은 10% 중반대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다만 최근 경기 둔화 우려가 높아지자 EPS 성장률 전망치가 하향 수정되고 있고, 이에 증시도 조정이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반면 유럽의 12개월 Fwd EPS 성장률은 5.8%로 최근 더욱 낮아지고 있다. 하지만 증시는 이와 상반되게 강세를 보이고 있다.

시장의 반응하는 것은 현재가 아닌 더 미래의 기대이다. 당장의 12개월 Fwd EPS가 아닌 내년도 EPS에 대해 상향 수정되는 비중인 EPS Breadth에 더 주목하는 이유이다. 실제 유럽의 내년도 EPS Breadth는 양의 수준으로 미국 대비 더 높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

국내 증시는 유럽과 비슷한 환경 조성, 경기민감주와 미래 전망이 좋은 업종/종목 관심

이러한 유럽과 미국 증시가 국내 증시에 시사하는 점은 (1) 한국의 상황은 유럽과 유사한 환경이 될 것이다. 정치적 불확실성의 해소와 함께 재정 정책과 통화 정책이 동시에 발현될 것이다. 유럽과 비슷한 정책 환경이 조성될 것이기 때문에 국내 증시도 방어주보다는 경기민감주 중심으로 랠리가 나타날 수 있다고 판단한다. (2) 트럼프 시대는 현재의 성과보다는 미래의 성과에 가중치를 높게 준다. 당장 현재가 아니더라도 미래에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업종/종목에 대한 투자 스타일이 더욱 유망할 것으로 본다. 코스피에서 경기민감 업종을 중심으로 내년 실적 전망치가 상향 조정 되고 있다.

트럼프 당선 이후 미국과 유럽 증시는 분명한 차별화 보임

트럼프 당선 이후 유럽 경기민감주 강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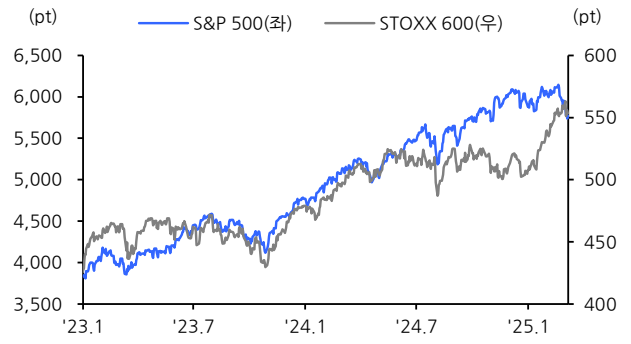
트럼프 당선 이후 유럽 증시와 미국 증시는 분명한 차별화를 보이고 있다. 트럼프의 당선이 확실시된 11월 6일 이후 미국 S&P 500은 -2.7% 가량 하락했지만, 유럽 STOXX 600은 +9.2% 상승했다(**그림1**). 이 과정에서 미국 증시는 방어주가 강세를 보인 반면, 유럽 증시는 경기민감주가 강세를 보였다(**그림2**). 미국은 "현재" 경기는 좋지만 점차 경기가 나빠질 것이란 우려가 반영되고 있고, 유럽은 현재 경기가 나쁘지만 더 많은 재정 부양책과 금리 인하로 향후에는 나아질 것이라는 "기대"가 높아진 영향이다.

경제 지표도 현재 레벨보다 서프라이즈지수 주목

매크로 지표도 마찬가지다. 미국은 유럽 대비 높은 성장률이 전망된다(**그림3**). 하지만 시장은 이러한 현재 시점의 좋은 경기가 아닌 미래에 나아질 것이란 기대감에 더 많은 가중치를 주고 있다. 시장은 CITI 서프라이즈지수와 같이 현재 레벨보다는 나아짐의 개선세에 더 중요도를 높게 보는 것이다(**그림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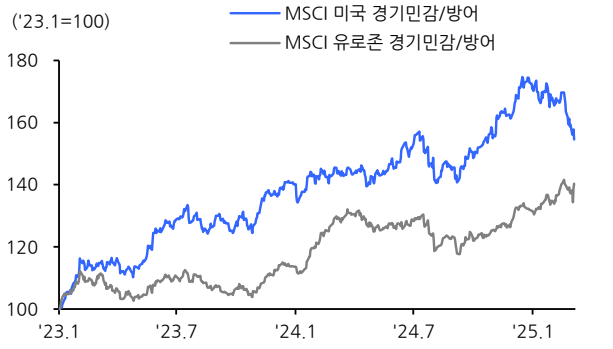
트럼프 2.0 시대를 맞아 지금까지의 성장률이나 지표는 정책으로 인해 크게 바뀔 수 있고, 미래 상황은 지금과는 달라질 것이란 인식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그림 1> S&P 500과 STOXX 600 성과 차별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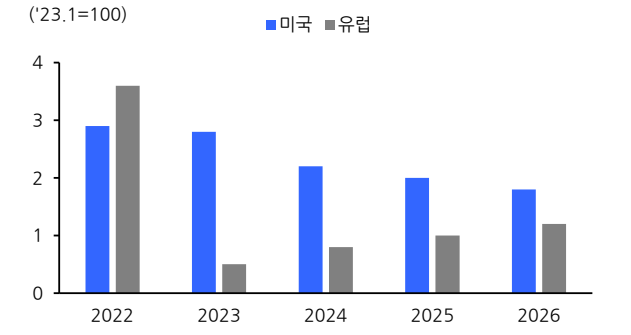
자료: FACTSET, 현대차증권

<그림 2> 유럽은 경기민감이, 미국은 방어주가 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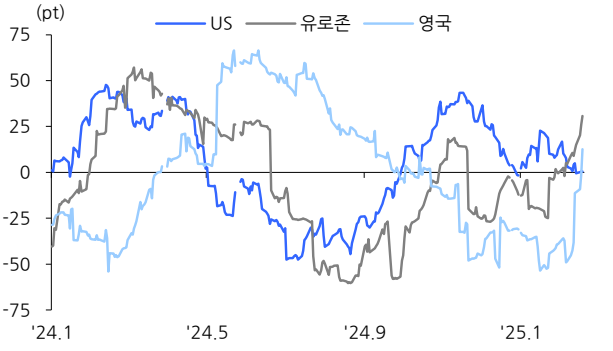
자료: FACTSET, 현대차증권

<그림 3> 미국과 유럽 GDP 성장률 전망치



주: 2025년부터는 전망치
자료: FACTSET, 현대차증권

<그림 4> 미국과 유럽 CITI 서프라이즈 지수



자료: 블룸버그, 현대차증권

당장의 EPS 성장이 아닌 내년 이후의 기대감에 편승

미국은 EPS 전망 하향 조정에 증시도 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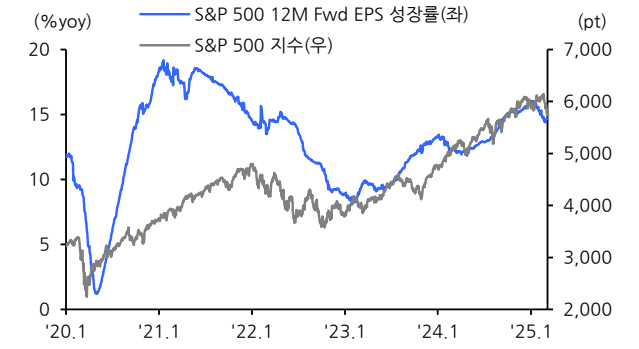
이러한 특징은 EPS 성장률과 Breadth를 비교해도 분명하다. 일반적으로 시장은 향후 12개월 동안 EPS의 성장률에 주목한다. 미국의 12개월 Fwd EPS 성장률은 10% 중반대로 높게 전망되고 지수는 이에 맞춰 레벨을 높였다(**그림5**). 반면 최근 경기 둔화 우려가 높아지자 애널리스트들은 EPS 전망치를 하향 수정하고 있고, 이에 증시는 조정되고 있는 것이다.

반면 유럽의 12개월 Fwd EPS 성장률은 연초부터 하향 수정되면서 5.8%까지 낮아졌다(**그림6**). 올해 부진한 경기를 반영하여 EPS의 전망치도 재차 낮추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증시는 이와 상반되게 강세를 보이고 있다.

반면 유럽은 올해 EPS 성장률보다 내년 이후 개선세 주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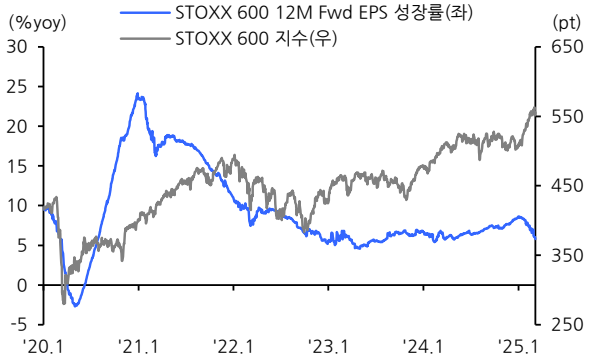
시장은 올해가 아닌 더 이후의 미래에 대한 전망에 반응하고 있다. 2026년 EPS 전망치에 대해 상향 수정되는 기업 비율인 EPS Breadth에 더 주목하는 이유이다. 유럽의 내년 EPS Breadth는 양의 값으로 미국 대비 더 높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그림7,8**). 완화적인 통화 및 재정 정책이 미래 경기를 개선시킬 것이란 전망이 커지고 있고, 내년도 EPS 전망치가 상향 수정되는 기업들의 수가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반면 미국은 하향 수정되는 기업들의 숫자가 더 많다. 시장은 내년 이후를 주목하고 선반영하고 있다.

<그림 5> 미국 12개월 Fwd EPS 성장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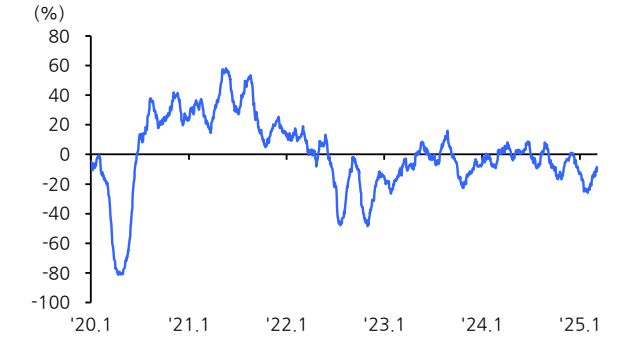
자료: FACTSET, 현대차증권

<그림 6> 유럽 12개월 Fwd EPS 성장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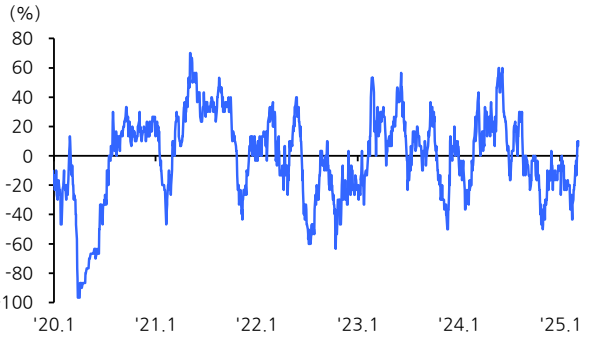
자료: FACTSET, 현대차증권

<그림 7> 미국 2026년도 EPS Breadth



주: Breadth란 (전망치 상향 조정 기업 수- 하향 조정 기업 수)/전체 종목수 비율
자료: FACTSET, 현대차증권

<그림 8> 유럽 2026년도 EPS Breadth



주: Breadth란 (전망치 상향 조정 기업 수- 하향 조정 기업 수)/전체 종목수 비율
자료: FACTSET, 현대차증권

국내 증시는 유럽과 비슷한 환경 조성, 경기민감주와 미래 전망이 좋은 업종/종목 관심

이러한 미국과 유럽 증시가 국내 증시에 시사하는 점은 두가지이다.

유럽과 비슷하게 경기민감주 추가 강세 가능

첫째, 한국의 상황은 유럽과 유사한 환경이 될 것이다. 상반기 정치적 불확실성 해소와 함께 강한 재정 정책과 한국은행의 완화적인 통화 정책이 동시에 발현될 것이다. 시간이 갈수록 현재의 유럽과 비슷한 정책 환경이 조성될 것이기 때문에 국내 증시도 방어주보다는 경기민감주 중심으로 랠리가 나타날 수 있다고 판단한다(**그림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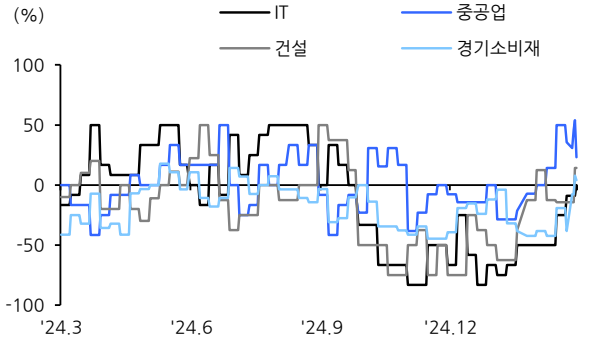
경기민감주 중심 내년도 EPS 전망치 개선되는 중

둘째, 트럼프 시대에 증시는 현재의 성과보다는 미래의 성과에 가중치를 더 높게 준다. 당장이 아니더라도 미래에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업종/종목에 대한 투자 스타일이 더욱 유망할 것으로 판단한다. 코스피200 업종별로 2026년 EPS Breadth를 보면 건설, 중공업, 경기소비재가 양의 값을 기록하고 있다. IT도 개선세를 보이며 0까지 상승했다(**그림10**). 경기민감주 중심으로 내년도 EPS 전망치를 상향 조정하고 있는 것이다. 유럽 증시와 비슷한 환경이 만들어질 때 미래 성과가 좋을 것으로 보이는 업종/종목에 관심도가 높아질 것이다.

〈그림 9〉 경기민감주와 방어주 성과 비교

주: 방어주는 에너지, 생활소비재, 헬스케어 업종, 경기민감주는 그 이외 업종
자료: 퀀티와이즈, 현대차증권

〈그림 10〉 주요 업종 2026년 EPS Breadth



주: 코스피200 기준 2026년 EPS Breadth가 0 이상인 업종
자료: 퀀티와이즈, 현대차증권

▶ Compliance Note

- 동 자료는 기관투자가 또는 제3자에게 사전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동 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율 1%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동 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유가증권(DR, CB, IPO, 시장조성) 발행과 관련하여 지난 6개월간 주간사로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 조사분석 담당자는 해당종목과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 이 자료에 게재된 내용들은 자료작성자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 투자의견 분류

▶ 업종 투자의견 분류 현대차증권의 업종투자의견은 3등급으로 구분되며 향후 6개월간 업종 펀더멘털과 업종주가의 전망을 의미함.

- OVERWEIGHT : 업종 펀더멘털의 개선과 함께 업종주가의 상승 기대
- NEUTRAL : 업종 펀더멘털상의 유의미한 변화가 예상되지 않음
- UNDERWEIGHT : 업종 펀더멘털의 악화와 함께 업종주가의 하락 기대

▶ 현대차증권의 종목투자의견은 3등급으로 구분되며 향후 6개월간 추천기준일 종가대비 추천종목의 예상 상대수익률을 의미함.

- BUY : 추천일 종가대비 초과수익률 +15%P 이상
- MARKETPERFORM(M.PERFORM) : 추천일 종가대비 초과수익률 -15% ~ +15%P 이내
- SELL : 추천일 종가대비 초과수익률 -15%P 이하

▶ 투자등급 통계 (2024.01.01~2024.12.31)

투자등급	건수	비율(%)
매수	170건	93.9%
보유	11건	6.1%
매도	0건	0%

- 본 조사자료는 투자자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당사의 사전 동의 없이 무단복제 및 배포할 수 없습니다.
-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 얻어진 것이나,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최종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 본 자료는 어떠한 경우에도 고객의 주식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